

8월29일(월)/딤후전 3:14~16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16절).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은 어느날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세상에 오셨다. 사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16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다.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16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신다(16절). 예수님은 한 민족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온 세계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은바 되신다(16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의 수가 고작 120명이었지만 지금은 믿는 자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16절) 즉, 승천 하셨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늘에서 시작하였고 또 하늘에서 끝난다.

8월30일(화)/딤후전 4:1~5

**제목: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의 교훈을 따르며, 그 양심에 낙인이 찍혀 속임수를 쓰는 자들은 영지주의 이단을 가리킨다(1~2절). 영지주의는 결혼을 금하고, 음식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3절). 영지주의자는 영은 선한 것이고 모든 물질은 사악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음식을 멀리했다. 결혼도 멀리했다. 결혼과 생식과 음식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몸을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기둥 위에 올라가서 항상 아슬 아슬하게 지냈다. 어떤 이는 평생 몸을 씻지 않고 지내면서 몸에 기생충을 길렀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4절).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음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모금의 공기도,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다. 그러므로 음식은 항상 감사함으로 먹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자이다. 크리스찬은 모든 음식이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식사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8월31일(수)/딤후전 4:6~16

**제목: 크리스찬은 선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실천적인 교훈을 준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리석은 교훈에 빠진 자들을 잘 지도하면 본인에게도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6절).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항상 힘쓰라고 하였다(7~8절). 영적 지도자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였다(12절). 나이가 어리지만 말과 행실과 신앙에 본을 보이면 권위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다(12절).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귀히 여기며,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전하는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늘 살피라고 하였다(13~16절). 여기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는 것과 같이 크리스찬은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8절). 신체를 훈련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성과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다. 크리스찬은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수이다. 그러므로 경건이 몸에 배도록 훈련해야 한다. 스포츠 선수는 신체 훈련을 위해 하루의 시간을 잘 안배해서 연습을 한다. 하나님의 선수도 기도, 말씀 묵상, 전도, 봉사에 대한 시간 안배를 해서 매일 훈련해야 한다.

9월1일(목)/딤후전 5:1~16

**제목: 이집 저집 싸돌아다니는 위험**

바울은 계속해서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다룬다. 크리스찬은 교회 내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깎듯이 대해야 하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친 형제나 자매처럼 대해야 하며 과부와 자기 부모와 친족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야 한다(1~4절). 바울은 두 번이나 홀로 된 과부를 철저히 돌보라고 하였다(3절, 16절). 당시 교회에 과부들의 명부가 있었다. 60세 이상 된 자 중에 신앙과 행실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등록할 수 있었고 당시 교회는 이런 자들을 철저히 돌보았다(9~10절). 그러나 젊어서 과부가 된 자는 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11절, 14절). 바울은 교회 내 여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한다. 교회를 섬기는 여성들은 쓸데없이 남의 집에 놀러 돌아다니며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남 흉을 보고 험담을 하고 소문을 퍼트리는 일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13절). 무작정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위험은 항상 말이 보태어지고 과장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또한 죄로 여기고 있다.

9월2일(금)/딤후전 5:17~25

**제목: 장로와 목사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생활에 관해서 실제적인 규칙을 제시한다. 장로들은 적절한 존경과 보수를 받아야 한다(17~18절). 어떤 종류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 말씀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 즉, 목회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장로와 목회자에 대해서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된다(19절). 이들에 대한 고발이 있다면 반드시 두 세 증인이 있어야 가능하였다. 왜냐하면 장로와 목사들은 늘 대중 앞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경도 받지만 악의에 찬 공격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앞에서 전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수치심이 그를 각성시키게 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20절). 그리고 교회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를 주지 말아야 한다(22절).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간단하게 뽑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 치료에 포도주가 좋다는 개인적인 노하우를 전해주기도 하였다(23절). 아마 디모데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같다. 그리고 교회는 선불리 사람을 재판대 위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어떤 혐의가 있어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24~25절).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